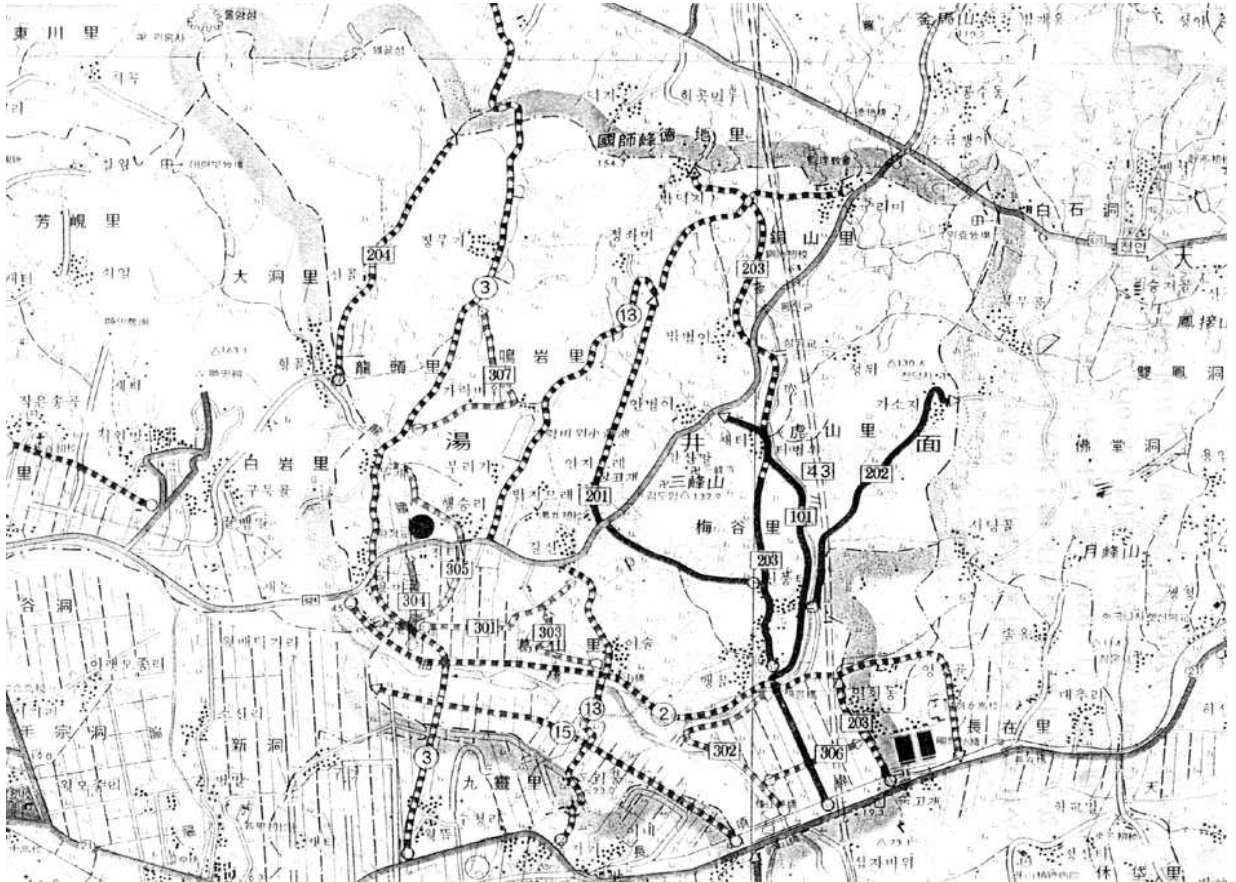


탕정면



탕정면은 6개 법정리, 10개 행정리로 이루어졌다.

[3] 탕정면 개황

원래 온양군 일북면지역으로서 여사, 갈산, 내금, 외금, 동산, 덕지, 입석, 매곡, 신평, 가소, 행승, 명암, 구미동, 내호, 외호, 신대, 성북 등 17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이북면의 구령, 수청, 오류동, 권곡, 모중, 신흥, 소룡, 신리, 용두, 수현 등 10개리와 아산군 원남면의 정좌, 창덕, 산곡, 대중 일부의 4개리를 병합하여 온양의 옛 이름인 탕정을 따서 탕정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갈산, 구령, 권곡, 동산, 매곡, 명암, 모중, 신리, 용두, 호산 등 10개리를 관할 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모중 권곡의 2개리를 떼어 온양읍에 넘겨주었으며 1983년 신리가 다시 온양읍에 넘어가고 1987년 구령리를 다시 배방면에 편입시킴으로써 현재 용두 명암 동산 호산 매곡 갈산 등 6개리를 관장하고 있음. 동쪽은 천안시, 남쪽은 배방면, 서쪽은 염치읍과 온양시, 북쪽은 음봉면에 닿아 있음.

탕정면은 행정구역상 6개의 법정리와 10개의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다.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볼 때 총 경지면적이 2,431ha이고 이 중에 밭은 395ha 논은 558ha 임야는 976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과수원, 목장등이 502ha이다. 또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주민등록 인구는 2,139세대중 6,594명으로 세대당 약 3명이 살고 있고 남자는 전체인구 6,594명중에 3,416명이고, 여자는 3,178명이다. 따라서 총면적 24.31km²중에 인구밀도는 271.2명정도가 된다. 통계적으로 탕정면의 세대당 인구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인구수는 그리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탕정면의 농가 및 농가인구에 관해 알아보면 총 696가구에 총 2,176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면적이 논과 밭을 통틀어 953ha이고 따라서 가구당 경지면적은 1.36ha 정도 된다. 물론 이를 유지하는데는 농업용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면 경운기463대, 트랙터 65대, 분무기 206대, 동력이앙기 231대, 동력파종기 15대, 동력양수기 56대, 관리기 256대, 콤팩트 48대, 동력사료 절단기 33대, 예취기 35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건조기, 난방기, 과일선별기, 비료살포기,

축산용, 착유기등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용해 영농의 기계화를 이루고 있다.

탕정면의 축산업에 관련하여 알아보면 총 106가구에서 가축 138,533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데 이중 한우가 891마리, 젓소가 262마리, 돼지가 4,531 마리, 사슴 57마리, 산양 128마리, 토끼 66마리, 닭 62,291마리, 오리 70,116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꿀벌도 5가구가 191군을 키우고 있었다.

다음으로 탕정면의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알아보면 의료기관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가 146명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그외에도 노인정 17개소로 413명의 노인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며, 이중 남자가 186명 여자가 227명으로 할머니들의 이용이 좀더 많다. 그러나 지금의 시설에서 이후 탕정면에 노인복지시설수용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등은 그 수가 더욱 늘어 탕정면의 복지향상을 기대한다.